

유난히 밝은 샘물의 밤 12학년에게 보내는 샘물 졸업생 편지



저녁 6시 30분. 샘물의 교실.
다른 학교 같으면 학생들은 가고 없을 이 시간, 샘물의 교실에 난데없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수능을 앞두고 밤 11시까지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12학년 학생들의 교실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찬양으로 저녁 공부를 시작합니다.

다른 학교와 달리 샘물의 밤이 유난히 환한 이유는 사교육 없이 샘물의 학생들이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이 금지인 샘물중고등학교는 무엇보다도 실력을 키우는 힘은 끌려다니며 떠먹여주는 학원 수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는 꾸준한 공부 습관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지난 10년을 통해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12학년 학생들에게 수능은 커다란 도전이자 어려움일 겁니다. 이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가자”가 아니라 의외의 당부와 다짐을 하는 우리 샘물인들. 12학년에게 보내는 샘물 4기 졸업생 선배의 편지글에서 확인하세요.

12학년 후배들에게...

많이 불안하고 조급할 이때... 내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우선 매일 아침이나 점심, 저녁 시간에 십 분이라도 강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좋겠어 :)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시니 입시로 인한 두려움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좋겠어!
(중략)

너무 마음이 쪼여 오고 힘들어질 때는 세상을 넓게 보려고 해봐~ 나도 모의고사 풀고 채점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은 나의 전부인 것만 같은 입시가 사실 전부 아니라는 사실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성공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도 공부와 대학 말고도 생각보다 많은 것(가족, 친구, 하나님 등)이 있거든. 그러니 점수와 상관없이 귀하다 여

김 받는 너희 자신을 볼 줄 알게 되면 좋겠고 그럴 때 비로소 입시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지금이 샘물에서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샘물에서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마음과 행동을 다스렸으면 좋겠어.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서로 예민해지고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야. 내가 배운 것들을 헛으로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말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친구 입장을 생각해서 조금 더 참고 배려하려고 했던 것 같아. 나도 어려웠지만 그것이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
아이들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한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너희들이 되길 바란다.

4기 졸업생 김예은
요약되지 않은 원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일정 안내

더샘물학교 입학설명회

대 상 2019학년도 기준, 초등 초1, 초2
 중등 초6(예비중등), 중1(7학년)
일 시 11월 17일(토) 오전 11시
장 소 더샘물교회(화성시 동탄신리천로 268)
문 의 031-8055-8339, www.tsmca.or.kr

기도가 필요합니다

Prayer for SMCA

다음세대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땅의 현실에 아파하고, 회복을 꿈꾸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동역으로 샘물중고등학교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가 성숙을 다지고 계속해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 1 샘물배움공동체가 지혜와 훈계를 알아가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깨달아 지혜롭게 실행하게 하소서.
- 2 샘물인이 말씀과 기도로 생활문화를 세워가며 섬기는 예수제자로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 3 12학년과 진학을 준비하는 졸업생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수시와 정시를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소서.
- 4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로 더 성숙하게 세워지도록 기도와 후원이 더욱 집중되게 하소서. 샘물배움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을 보고, 주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 5 주신 비전을 따라 분립하는 더샘물교회, 더샘물학교와 해외선교캠퍼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더샘물학교의 입학설명회에 많은 기독교부모가 참석하여 더샘물학교의 기독교교육을 듣고 자녀들을 보내게 하소서.
- 6 대안교육진흥법이 속히 제정되어, 기독교대안학교의 법적지위가 확보되고 기독교 학교운동이 더욱 확산되게 하소서.

NEWS LETTER

발행인 박은조 발행처 샘물중고등학교 발행일 2018.10.21 제4호

인사말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언제였던가 싶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샘물에게 가을은 다음 해를 준비하는 분주한 계절입니다. 입학설명회에 이어 원서 접수와 선발캠프, 가족면접이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샘물의 다음 한 해, 아니 새로운 6년이 시작되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기독교교육 사역에 함께할 새로운 가정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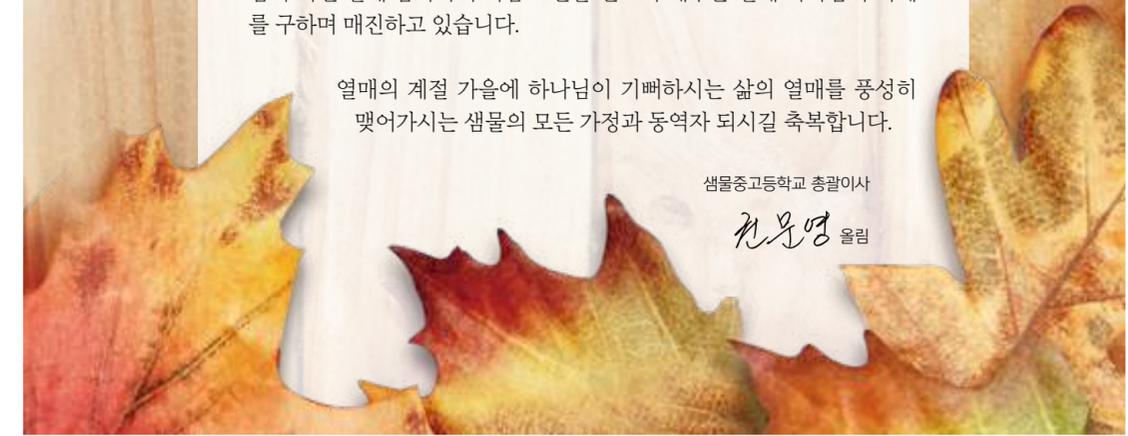
특히 올 여름과 가을에는 동탄에 자주 다녀왔습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준비하는 동탄의 더샘물학교는 학교 공간도 착실히 세워지고 있고 선생님들도 이미 세워져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탄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이 시작했기에 주일마다 동탄 지역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던 선생님들의 노력과 기도로 하나 둘씩 협력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입학설명회에 참석하는 동탄 지역 학부모들을 보면서 10년 전 샘물중학교가 처음 세워졌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겠다는 부모님들의 마음, 힘겨운 기독교학교 운동을 위해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주시는 교회공동체와 후원자분들 덕분에 샘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샘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며 다음 10년을 견고히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매진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샘물의 모든 가정과 동역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샘물중고등학교 총괄이사

김문영 올림



2018년 9월, 은혜관 건립 감사예배

은혜관과 함께 샘물의 아이들도 세워져갑니다.



2017년 6월, 샘물의 모든 학생들이 모여 아무것도 없던 땅을 둘러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2017년 8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은혜관이 건립되었습니다.

2017.8~2018.9 은혜관 건축현장



은혜관 안내



9월13일(목) 진행된 학부모, 학생, 교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2018년 가을학기 첫 연합예배는 은혜관 건립 감사예배로 드러졌습니다. 총 6개층으로 구성된 은혜관은 실내체육관, 도서관, 과학실, 보건실, 중예배실(심성민홀), 소예배실, 유치등학교 교실, 지원본부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양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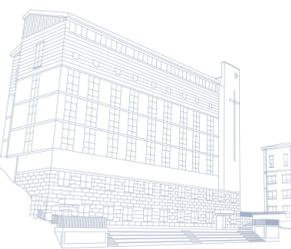


자유로운 상상력과 심이 있는 샘물의 도서관에서는 선생님들의 재량에 따라 수업도 진행됩니다. 교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책을 찾고, 읽고, 이야기하며 수업에 더욱 활기가 넘칩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을 갖춰가며 내실 있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실내체육관(배형규홀)



배형규홀로 불리는 실내체육관은 우리 학생들이 제일 반기는 공간입니다. 그동안 비가 내리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교실에서 체육 수업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열자마자 샘물에도 첫 방과후 체육 수업이 시작되어 배드민턴, 탁구, 농구하는 학생들로 체육관이 북적입니다.



은혜관 건립은 시작일 뿐, 이곳을 토대로 우리 자녀들을 시대가 요구하는 탁월한 실력을 지닌 섬기는 예수제자로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의 혁신도 계속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 융합 교육,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은사개발 프로그램 및 진로진학 시스템 등 샘물의 특별한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관에서,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샘물의 아이들은 계속 세워져 갑니다.

IT와 스포츠로 열리는 샘물의 첫 방과후 수업



방과후 스포츠클럽

2018년 가을겨울학기부터 샘물중고등학교에 방과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샘물의 방과후 수업, 그 첫 과목은 IT와 스포츠(체육)입니다.

IT 과목은 코딩(월), COS 자격증(화), 3D모델링 프린팅(수)이 개설되어 8, 9학년 학생 약 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스포츠클럽'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체육 수업은 은혜관 실내체육관 개관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예비중등부터 9학년까지 약 6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합니다. 배드민턴과 탁구 과목이 있는 월요일과 농구와 워싱턴스가 진행되는 화요일, 은혜관은 늦게까지 북적거립니다.

IT 수업을 진행하는 지원본부 장상현(짱) 선생님

interview

Q. 샘물에서 방과후 수업이 처음인데 우선적으로 IT 과목이 개설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존의 사고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 가는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그 시대적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며, 더 나아가 선두에서 시대를 이끌어 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IT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Q. 오랜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본부에서 학교의 IT 시스템을 책임지면서 3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IT 과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학교는 IT 교실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도와 노력으로 함께 준비해 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사비를 들여^^ 5대의 다양한 3D 프린터를 구입해 테스트하는 등 준비해 왔습니다.

Q. 어떤 것을 배우나요?

코딩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간단한 블록들로 로봇을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던 기술이죠. 코딩 수업을 통해 올해는 우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툴에 익숙해지도록 하려고 해요. 3D 프린팅 반은 실제 학교나 가정,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놀라운 기술들을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배웠으면 합니다. COS

자격증을 준비하는 자격증반에서는 학생들이 올해 1차 3급, 2차 2급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 한 마디 해주세요.

코딩과 3D디자인 모두 "생각하는 힘"이 중요한데 샘물의 아이들은 그 생각하는 힘이 좋아 수업이 즐겁습니다. 아이들도 즐겁게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이나 드라마, 유튜브 등 소비적인 미디어들에 빠져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창조의 재미를 아이들이 점점 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IT 수업과 3D 프린터 제작물들